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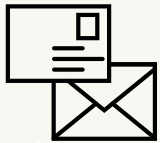
HD현대오일뱅크

사보 독자 게시판

2023년 10월호를 보고

'독자 게시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당월 말까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HD현대오일뱅크> 사보에 꾸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기재하신 개인 정보는 선물 발송 후 한 달 안에 폐기됩니다.

기한 2023년 11월 30일



<HD현대오일뱅크> 11월호를 읽고

다음의 퀴즈를 풀어보세요!

이번 호 '기획 1'에서는 우리 회사 '부모님 초청 행사'를 다뤘습니다. 행사 둘째 날 천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에서 산책하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는데요. 빈 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초성 힌트, S D S



직영전략팀 강민희 선임

<기획 1_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 23년만에 새 단장> '새롭게 태어난 HD현대오일뱅크' 기사를 통해 회사의 히스토리를 한 번 더 짚어보고, 새로운 CI가 적용된 GRC주유소의 멋진 전경과 마케팅팀에서 준비한 임직원 대상 이벤트를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마케팅팀 근무 당시 준비했던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때의 기뻐던 마음이 떠올랐는데요. 팀원 모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 지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같은 본부원으로서 부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HD현대케미칼 환경팀 김선희 사원

<오일뱅크 스토리> 칼럼이 좋았습니다. 저 역시 축구 경기를 관람하러 수원에 갔는데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응원 열기도 뜨거웠어요. 함께 응원하며 축구 경기를 관람해 흥미로웠는데, 그날의 분위기가 사보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기분 좋았습니다.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채널인프라관리팀 이승미 선임매니저

<온기 충전소> '2023년 희망바퀴 장학생 수기' 기사에서 우리 회사의 희망바퀴장학사업에 선정된 장학생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합니다. 또 훗날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학생의 꿈이 꼭 실현되기를 응원합니다!



전남지사 김혜진 사원

<녹색 도시 탐방> '느림의 미학, 이탈리아 오르비에토' 기사를 보며 신혼여행으로 오르비에토에 갔던 게 생각났어요. 입사 후 가장 긴 휴가여서 기대가 컸지만 장시간의 비행으로 여독이 풀리지 않았는데요. 오르비에토의 풍경을 보면서 싹 나는 기분이었어요. 소도시의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 그리고 오래된 건물은 마치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 했죠. 아, 다시 가고 싶네요!